



금리 변동성 확대로 defensive 매력 부각 예상

은행 Weekly | 2026.9.28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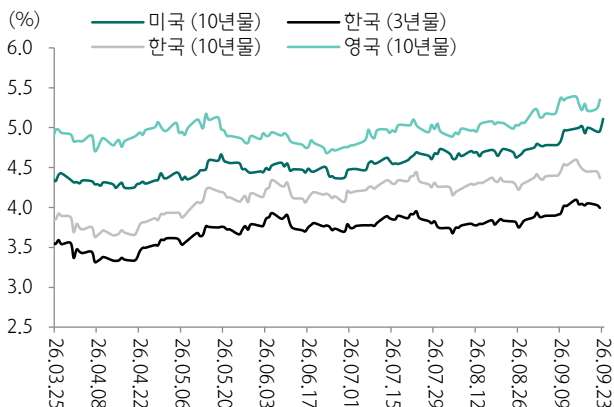
- 5대 시중은행 기준 정기예금 잔액이 수신금리 인상과 미국 FOMC 금리 인상 호재에 5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 은행들 역시 현재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해 정기예금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
-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은행이 손잡고 지역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업 자금 공급에 나선다. 전북·경북·경남 각 지역에 축적된 제조 인프라와 기업의 기술력, 정책금융을 연계해 피지컬 AI 산업의 실증과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을 함께 지원하겠다는 것
- 지난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월말보다 0.07%p 상승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0.06%p 높은 수준. 분기말 대규모로 이뤄졌던 부실채권 정리가 줄어든데다 일부 기업들의 회생·워크아웃 신청으로 신규 연체가 늘어난 영향
-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분양잔금대출 시장에 진출. 기존 개별 차주 중심이던 주담대 영업 범위를 단지 단위 집단대출까지 확대. 2분기 주담대 잔액이 감소한 상황에서 신규 입주 수요를 확보해 성장세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행보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9월 25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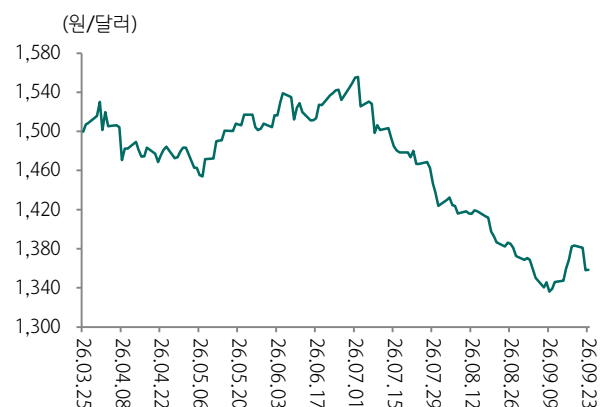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62	6.9	23.7		5,852,361.4	2.7	5.7	-16.4	68.0	2,231.9	-264.3	-0.1	-7,156.8
은행	0.72	8.2	9.1	0.65	213,970.4	-0.6	5.9	14.0	31.8	154.5	-13.3	-156.6	-2.3
KB 금융	0.94	9.1	10.6	0.81	61,431.9	-1.0	6.2	14.1	38.9	67.3	-2.9	-62.8	-3.8
신한지주	0.83	9.7	9.7	0.69	51,310.9	-0.7	5.8	14.2	42.1	30.7	-6.5	-39.1	8.7
우리금융	0.63	8.0	8.3	0.52	26,045.4	-2.1	10.6	20.9	26.3	18.9	-0.7	-20.1	-3.7
하나금융	0.72	8.2	9.3	0.64	36,066.1	0.0	3.4	16.5	41.4	29.3	1.0	-33.4	3.8
기업은행	0.43	5.9	7.5	0.54	16,267.5	1.7	1.0	1.2	-2.6	3.9	-1.6	-1.9	-3.2
BNK 금융	0.44	6.1	7.4	0.50	4,900.2	2.4	11.2	-2.8	0.6	-2.2	-4.1	8.7	-5.3
이M 금융	0.43	5.8	7.5	0.47	2,820.5	-2.3	4.1	11.8	14.5	1.4	-0.6	-2.4	0.9
JB 금융	0.85	7.4	12.1	1.00	5,623.6	-2.3	10.6	26.7	17.5	5.3	2.1	-5.5	0.2
카카오뱅크	1.33	16.5	8.3	0.73	9,504.2	-2.6	-7.8	-0.6	-7.8	3.0	2.5	-18.7	15.4
삼성카드	0.54	7.8	7.0	1.90	4,918.2	-3.0	-8.3	-7.3	-24.1	-3.0	-0.5	-2.7	5.7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0.6% 하락해 KOSPI 상승률 2.7% 대비 초과하락세 지속. 지난주에도 1) 반도체와 반도체소부장만 독주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비반도체 업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2) 은행주의 경우 추석연휴 직전까지는 글로벌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으며(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당폭 하락), 3) 전전주부터 돌변했던 외국인의 은행주 순매도 양상이 전주에도 지속되면서 수급 약화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추석연휴 직전까지는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추석연휴 기간동안 큰폭 상승. Fed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매파적 발언과 기대 이상의 미국 경제지표, 채권트레이더들의 단기물 포지션 정리 등이 영향을 미친 듯.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5.5%에 근접했고, 10년물도 한때 5.2%대를 상회. 10월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확률은 70%대까지 높아졌음. 다만 미국과 이란 협상단의 중동 분쟁에 대한 단계적 종식 합의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금요일에는 미국 국채금리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음. 결국 전주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86%로 한주간 10bp 상승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5.17%로 한주간 17bp 상승. 국내 국채금리는 추석연휴 기간의 글로벌 금리 상승이 아직 미반영된 상태. 3년물 국채금리는 4.01%로 한주간 3bp 하락했고, 10년물은 4.39%로 8bp 하락. 한편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과 미국과 이란간 협상 기대감 등으로 다시 하락 전환. 1,357.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28.5원 하락. 외국인은 지난주에 KOSPI를 거의 순매도하지 않았음에도 은행주는 1,570억원을 순매도. 전전주에 이어 순매도 흐름이 지속되는 양상. 반면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2.2조원과 1,550억원 순매수. 다만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 1,100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추정
- 전주 특징주는 BNK금융과 기업은행. 한주간 주가가 2.4%와 1.7% 상승해 상승 폭이 가장 컸음. 특히 수요일에 초과상승 폭이 컸는데 외국계증권사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로 당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주된 배경으로 추정. 특히 BNK금융의 경우는 지난주에 유일하게 주간 단위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였음. BNK금융과 기업은행은 올해 YTD 연간 누적상승률이 (-)를 기록하면서 PBR이 약 0.43배 수준에 그치는 등 그동안 초과하락 폭이 워낙 컸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카카오뱅크는 9월 16일 분양잔금대출 출시. 현재 대상 단지는 약 20곳(수도권 11곳, 비수도권 9곳)이고, 대출금리는 4%대 초반으로 타행대비 금리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 대출 신청과 실행, 등기까지 모바일로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금리 경쟁력도 상당해 출시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시장 반응이 매우 좋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카카오뱅크의 올해 상반기 대출성장률은 약 2.8% 수준에 그쳤고, 3분기에도 대출성장률은 약 1.1~1.2%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 중 총량규제에서 벗겨나 있는 분양잔금대출 성장세가 본격화될 경우 올해 연간 8%대의 목표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는 듯(4분기에만 4% 이상 성장 기대). NIM이 하락하는 전통은행들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3분기에도 NIM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분양잔금대출 성장세가 회사측 기대만큼 커질 경우 NIM에는 소폭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성장을 회복 측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추석명절기간 동안 글로벌 국채금리가 큰폭 상승. 최근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3분기 NIM이 하락하면서 금리 상승이 NIM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이는 상반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후행적 수신금리 상승과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머니무브 대응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NIM은 결국 다시 재상승할 수 밖에 없음. 물론 국채금리 상승이 유가증권평가액 축소 및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 등을 동반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NIM 기대가 건전성 우려보다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 추세적으로도 금리 흐름과 은행주 주가 방향성이 동일했다는 점에서 금리 상방 리스크는 은행주에 defensive 주식으로서의 매력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
- 공정위원장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심의를 마쳤고, 조만간 위원회의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 합의 도출이 늦어지는 이유를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곧 발표가 예상되는데 관련 이슈가 은행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왔던 만큼 부과 과징금이 매우 큰 규모가 아닐 경우 결과 발표는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공산이 큼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35,000원),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 KB금융의 3분기 실적은 타행들과는 달리 부동산매각익과 외화환산익 등의 대규모 비경상 이익 발생 요인 없이도 양호할 것이라는 점에서 펀더멘털 측면의 강점 부각 예상. 금리 모멘텀 재발생시 업종내 리딩뱅크 프리미엄 강화 가능성 또한 높음
- 우리금융은 유진PE 블록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재유입되면서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 중. CET 1 비율 급등으로 향후 주주환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올해 주가상승률이 경쟁사들 대비 여전히 적어 상대적 valuation 매력도 높음

Global Peer Table

(2026년 9월 25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62	6.9	23.7		5,852,361.4	2.7	5.7	-16.4	68.0
은행	0.72	8.2	9.1	0.65	213,970.4	-0.6	5.9	14.0	31.8
KB금융	0.94	9.1	10.6	0.81	61,431.9	-1.0	6.2	14.1	38.9
신한지주	0.83	9.7	9.7	0.69	51,310.9	-0.7	5.8	14.2	42.1
우리금융	0.63	8.0	8.3	0.52	26,045.4	-2.1	10.6	20.9	26.3
하나금융	0.72	8.2	9.3	0.64	36,066.1	0.0	3.4	16.5	41.4
기업은행	0.43	5.9	7.5	0.54	16,267.5	1.7	1.0	1.2	-2.6
BNK금융	0.44	6.1	7.4	0.50	4,900.2	2.4	11.2	-2.8	0.6
IM금융	0.43	5.8	7.5	0.47	2,820.5	-2.3	4.1	11.8	14.5
JB금융	0.85	7.4	12.1	1.00	5,623.6	-2.3	10.6	26.7	17.5
카카오뱅크	1.33	16.5	8.3	0.73	9,504.2	-2.6	-7.8	-0.6	-7.8
삼성카드	0.54	7.8	7.0	1.90	4,918.2	-3.0	-8.3	-7.3	-24.1

미국

S&P 500	5.20	21.5	22.9	6.05	69,171.8	1.2	1.0	5.5	13.1
은행	1.64	12.4	13.3	1.15	2,209.2	-1.7	-4.5	-1.4	4.1
Wells Fargo	1.47	11.4	13.3	1.03	250.9	-3.7	-2.2	-1.5	-11.0
JPM	2.48	14.0	18.9	1.38	911.9	-1.9	-3.8	2.8	6.5
CITI	1.14	12.1	10.0	0.71	225.3	1.9	0.8	-6.9	15.1
BOA	1.40	12.2	12.1	0.99	396.5	-1.8	-8.7	-2.1	3.1
US Bancorp	1.47	11.3	13.2	1.19	92.4	-1.2	-4.9	-2.2	11.2
PNC	1.50	11.7	13.1	1.27	90.0	-3.2	-7.6	-7.3	8.1
BB&T	0.97	10.3	9.6	1.05	58.2	-1.9	-5.3	-5.0	-3.2

중국

상해A주지수	1.37	13.9	10.1	1.43	62,555.8	0.4	0.4	-4.4	-2.0
은행	0.59	6.5	9.1	0.67	11,093.7	0.0	1.6	10.8	-2.0
공상은행	0.70	7.8	9.1	0.68	2,750.2	-0.1	3.0	12.6	2.5
건설은행	0.77	8.3	9.6	0.73	2,194.5	0.6	3.0	12.9	18.3
농업은행	0.82	8.3	10.0	0.62	2,364.6	-0.3	0.2	8.4	-10.6
중국은행	0.74	8.8	8.7	0.65	2,007.4	0.6	8.0	12.2	15.5
교통은행	0.55	7.1	7.9	0.62	648.9	-0.3	5.0	16.9	4.3
초상은행	0.86	6.8	12.9	1.13	1,037.8	0.2	2.8	13.7	-3.4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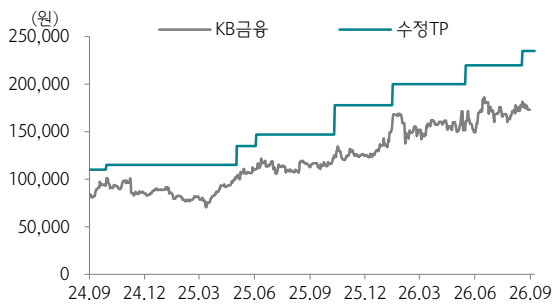
NIKKEI	2.83	21.5	12.8	4.60	1,055,670.9	2.1	0.8	-8.2	31.8
은행	1.50	15.6	9.5	0.51	151,533.1	2.3	5.5	15.1	50.4
Mitsubishi UHF	1.97	18.7	10.8	0.61	44,076.7	2.6	5.2	14.9	49.0
Sumitomo Mitsui Financial	1.69	16.7	10.8	0.61	26,300.0	1.3	4.3	9.1	37.3
Mizuho	1.91	17.7	11.4	0.43	21,071.9	1.5	5.1	11.7	51.3
Sumitomo Mitsui Trust	1.51	16.7	9.3	0.37	5,035.7	1.9	3.9	20.5	50.9

유럽

MSCI Europe	2.36	15.5	14.6	1.77	15,265.2	0.6	-2.6	0.1	8.1
은행	1.57	11.4	13.9	0.75	2,227.2	1.0	0.4	7.3	21.2
HSBC	1.85	11.9	15.4	0.86	259.2	0.0	-0.3	5.1	28.8
Santander	1.67	12.0	13.8	0.78	183.0	0.4	-0.1	5.5	24.9
BNP Paribas	0.89	8.5	10.9	0.44	109.4	1.8	-1.8	-0.4	22.9
Credit Agricole	0.74	7.9	9.8	0.29	55.6	0.0	-4.3	2.9	3.6
Deutsche	0.90	9.6	9.6	0.44	61.2	-3.2	-4.0	6.2	-3.3
Unicredit	1.79	11.4	16.6	1.23	126.6	3.5	-0.5	7.4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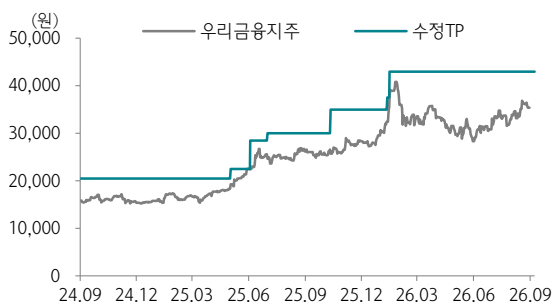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9.13	BUY	235,000		
26.6.12	BUY	220,000	-23.34%	-15.36%
26.2.11	BUY	200,000	-22.36%	-14.2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우리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9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건의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8%	1.82%	0.00%	100%

* 기준일: 2026년 9월 25일